

최경희 교대 교수, 초대 초등교육학회 학회장 취임

전주교육대학교 최경희 교수(국어교육과)가 초대 한국초등문학교육학회 학회장으로 취임했다.

전주교대에 따르면 한국초등문학교육학회는 아동문학을 중심으로 소통하는 교육공동체로서, 2025년 2월 8일 발대식 및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앞으로 초등문학교육, 아동문학교육의 주축이 돼 아동문학을 새롭게 바라보고 수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학문적 기틀을 다질 예정이다.

최경희 교수는 “한국초등문학교육 공동체를 구성해 뜻깊은 교류를 이어가는 학회 분위기를 만들어 아동문학교육의 외연을 더욱 확장하고, 학문적 성장을 도모하도록 열정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은성 기자



최경희 교수

남원 도동동, 독거노인 등 밀반찬 지원사업 진행

남원시 도동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소선자, 민간위원장 김희민)는 지난 27일, 관내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해 식사 준비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랑 듬뿍 찬·찬·찬’ 밀반찬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도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회 식사 취약계층 17가구를 대상으로 반찬을 전달하고 인부를 확인하는 등 지역복지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주민 김모씨는 “동에서 주는 반찬이 제일 맛있어서 매달 기다리게 된다며, 반찬을 직접 배달해 주시니 마음도 따뜻해지고 너무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소선자 동장은 “관내 어려운 이웃들의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항상 경청하는 등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동충동, 취약계층 이불세탁 서비스 실시

남원시 동충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자남)는 지난 31일, 이불 세탁이 어려운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불세탁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번 서비스는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대한적십자사 남원지부와 협력, 1일 1가구 방문을 통해 이불을 직접 수거하고 세탁·건조한 후 다시 가정으로 전달 위생적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동충동은 1일 1가구 방문을 통한 소통행정을 실천하며, 수급자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가정을 직접 찾아가 안부를 확인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김자남 동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향교동, 마음사랑 프로젝트 추진 협약 체결

남원시 향교동에서는 최근 마을의 병으로 인한 자살이 전국적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마음사랑 프로젝트’ 사업을 위해 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 향교동과 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공동으로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관리 사업을 추진,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과 생명지킴이 활동 교육을 주기적으로 가질 예정이다.

특히, 취약계층이 전입하는 경우 우울증 선별검사를 진행해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상자는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게 된다.

최현몽 동장은 “이번 사업은 정신건강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 산불피해 지역에 온정 쏟아져

지역 주민·기관·단체·자매결연도시민들 산불피해 현장 직접 방문 위로

지난 28일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인근에 발생한 불로 136명의 주민들이 마을 화관 등으로 대피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지역 주민과 기관·단체, 그리고 멀리 자매결연도시민들의 온정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28일까지 사흘간 무주군산불조합과 농협, 안성면·설천면 농촌지도자회, 무주군 이장협의회, 농촌종합지원센터, 설천면 이장협의회, 도시재생지역센터, 무주군청 공무원 노조, 대한적십자사 무주지부, 한수원(사회복지협의회)과 한국후계농업경영회, 무주군지역자활센터, 새마을부녀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나지역이동센터, 행북한흙스쿨지역이동센터, 안호영 국회의원 사무실, 수지원공사 용담댐, 무주군 농민회,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구천동농협, 한양에너지, 한국부인회, 소방청, 무진장축산농협협동조합,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의 단체들이 현장에 빵과 물, 과일, 음료수, 비타린D, 마스크, 커피차, 고기 등을 보내고 자원봉사활동에 동참하는 등 마



음을 전했다.

부남면용실 이은숙 대표를 비롯한 무주스키렌탈협회, 익명의 유튜브버, 도소마을 주민 김종현 씨와 김밥나라 신운권 대표, 강다솜 씨, 금산읍 주민 손용현 씨도 각각 도시락과 초코빵, 홍삼액, 생수, 김밥과 두유, 콩나물 등을 기탁했으며 평화요양원 화진석 사무국장과 최락돈 무주군청 전 비서실장, 푸른약국 진상영 약사, 강인영의원 이강안 의사, 남대전술불갑비 이광운 대표가 함께 드링크제를 전달했다.

28일에는 자매도시인 경기도 부천시(1997년~ 농산물 직거래, 무주반딧불축제 및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상호방문 등 경제·문화·체육·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중)에서도 오동택 행정복지국장 등 4명이 찾아와 김밥면과 즉석밥, 김, 생수 등 구호 물품 8천여 개를 전달했다.

이 물품들은 부천시청과 농협은행 부천지사에서 함께 마련한 것으로 이날 부남면민들에게 전달됐다. /무주=전문선기자

정읍 소성면, 산불 이재민에 온정의 손길... 지역사회 한마음

지난 25일 고창군 성내면에서 발생한 정읍시 소성면 화룡리까지 번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정읍시 곳곳에서 따뜻한 나눔과 연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식료품과 생필품을 중심으로 한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정읍산림조합, 전북농협중앙회, 참좋은푸드마켓, 농협손해보험 전북총국, 한마음복지센터, 정읍자원봉사센터, 국화화관, 농협 정읍출장소, 전북은행 정읍출장소, 황토현농협 농가주부모임, 후안농장 수지원공사, 정읍지사, 소성면 이장협의회, 청소년봉사단, 손재주봉사단, 소성교당, 미선아네 식당, 민주당 읍면동협의회다. 소성면 김영상·김선기 이장 등 다수의 단체와 개인이 정성 어린 물품을 전달하며 힘을 보탰다.

또한 정읍연합나우회와 정읍농협을 시작으로 한우협회, 한돈협회, 오리협회, 육계협회, 흑염소협회 등 축산 관련 단체들의 기부 문의로 이어지며 이재민을 향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정읍시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지역재해구조 통제본부는 피해 당일부터 현장을 지키며 이재민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복지자원을 발굴·연계하고 있다. 임시거주시설 운영, 의류와 생필품 지원은 물론 심리 상담까지 세심하게 이어지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장수교육지원청, 헌혈 캠페인 통해 ESG 실천 앞장서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곤)은 2025년 ESG 실천을 위한 1분기 자원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31일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협력하여 전북 지역 내 혈액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고, 장수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나누는 기쁨을 체험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

추영곤 교육장은 “헌혈 캠페인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한 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활동으로 장수교육지원청 교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혈액 수급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어 기쁘다 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김제 길보른재단, 길보른주택기금 2000만원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사회복지법인 길보른재단(대표이사 조창연)이 지난 31일 환경취약 계층을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위한 ‘길보른 주택기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길보른 주택기금은 김제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진행하는 환경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며, 이 사업은 각종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었거나 주거 환경 때문에 신음하는 저소득 가정에 지킴의 희망을 심어주고 그 가정이 사회의 건전한 일원이 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창연 대표이사는 “길보른재단이 지역을 위한 작은 힘을 보탬 수 있어 기쁘다”라고 전하며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김제시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도태 기자



농협은행 임실, 인재육성 기부금 5000만원 기탁

NH농협은행 임실군지부(지부장 이재문)는 지난 28일 임실군 인재육성을 위한 기부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임실군청에서 열린 이날 기탁식에는 심민 군수, 유효선 교육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기부금은 임실군 학생들의 학업과 진로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이다.

심민 군수는 “지역 대표 금융기관인 농협은행의 관내 학생을 위한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임실군은 지역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여 임실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효선 교육장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따뜻한 마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실력있는 임실 인재를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전종영 기자



무주군, 2025년 영농발대식·풍년기원제 성료

무주군은 지난 31일 무풍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2025년 영농발대식 및 풍년기원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주군농민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그리고 지역 내 기관·사회단체장들과 농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풍요로운 한 해 농사를 기원하고 농업 발전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무주군농민회 이장구 고문과 이영준 부회장이 농민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무주군농민회로부터 공로패를 받았으며, 구천동농협 김현숙 차장은 농협과 농민간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서로 상생하는 농촌을 만드는데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외에도 무주농협 무주농산물유통센터 유지춘 과장, 무주군 농업정책과 원예특작 정청남 팀장이 농산물 마케팅, 품질관리 그리고 농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무주군농민회 최연수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농민기본법, 필수농자재 지원법 등 농업 관련 법안이 신속히 제·개정돼 힘쓰겠다”는 다짐과 “농업 농촌 발전과 더불어 나아가 무주농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힘 모아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황인홍 군수는 “기후변화에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 내수 부진 등 어려운 여건으로 농업·농촌이 마주한 현실은 극복할 없지만 올해도 여러분을 믿고 또 열심히 뒷받침하며 가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고창교육지원청, 친환경 자원봉사활동 진행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한숙경)이 지난 28일, ESG 실천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의지를 담아 진행됐으며, 고창교육지원청 직원들은 인근 지역의 쓰레기 줍기 활동에 적극 동참했다.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특히 행사 현수막 제작에 친환경 소재와 탄소중립제를 사용해 환경 보호 메시지를 강화한 점이 눈길을 끈다.

고창교육지원청은 이를 통해 ESG 추진 방향에 따른 사회적 책임 이행과 지속 가능한 미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창교육지원청 한숙경 교육장은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친환경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진안군청 역도선수단, 2개 전국대회서 메달 9개 획득

진안군청 역도선수단이 지난날 21일부터 28일까지 충남 서천에서 열린 ‘제73회 전국춘계남자역도경기대회’와 ‘제63회 전국남자주니어역도선수권대회’에 출전해 금메달 4개, 은메달 1개, 동메달 5개를 획득하며 이름을 날렸다.

‘제73회 전국춘계남자역도경기대회’에서 유동주 선수는 남자 96kg급에 출전해 용상 202kg, 인상 156kg, 합계 358kg을 들어 올리며 금메달 3개로 3관왕을 차지했고, 최지호 선수는 남자 81kg급에 출전하여 용상 166kg, 인상 133kg, 합계 299kg을 들어올려 동메달 3개를 획득했다.

또한 ‘제63회 전국남자주니어역도선수권대회’에서 김정민 선수는 남자 81kg급에 출전하여 인상에서 130kg을 들어 올리며 은메달 1개를 획득했고, 김요한 선수는 남자 67kg급에 출전하여 금메달 1개(용상 166kg)와 동메달 3개(인상 115kg, 합계 281kg)를 획득했다. 특히 김요한 선수의 용상 166kg은 한국주니어신기록을 기록한 것으로 역도의 미래 주역으로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했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달부터 메달을 수확하기 시작하여 진안군의 명예를 선양한 역도선수단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특히 유동주 선수의 3관왕과 김요한 선수의 용상부분 한국주니어신기록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